

EVERLAND 30th
ANNIVERSARY!



30주년 전라북도 20060317~
30주년 오로남 새레오니 20051231~
에버랜드 30주년 기념관 20060101~
에버랜드 갈라 콘서트 20060317~
에버랜드 포토빌 20060201~20061231
30주년 개장 기념 행사 20060416.17



이솝마을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와서 더 신나요

마치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엔 꼭 남자친구와 올 거예요

여기가 우리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for ever



아빠, 매일 매일 오면 안 돼요?

L  A **N** D

30

years old

에버랜드가
어느덧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향긋한 꽃향기처럼
재미있는 동화처럼
신나는 축제처럼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활력이 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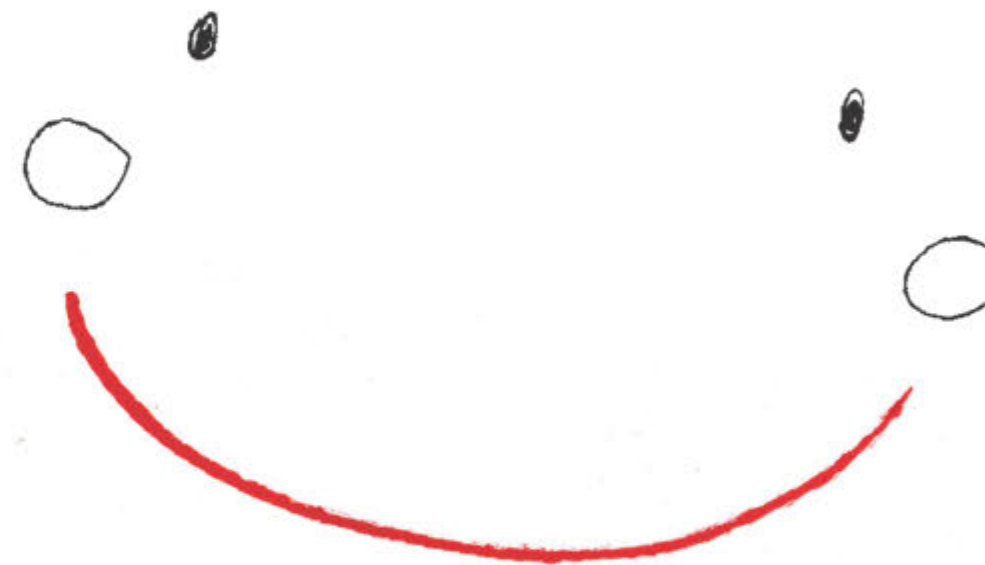
당신이 환하게 웃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장 설레는 미래입니다.

• Everland is Smile

세 상 에 서 가 장 빛 나 는 미 소



- 1 Everland is Smile
- 2 고객직 미소
- 10 Everland is Memory
- 12 30년 이야기
- 13 추억의 사진첩
- 18 Everland is Fantasy
- 20 이미지 갤러리
- 32 축제와 엔터테인먼트
- 34 리조트 시설
- 36 Everland is Dream
- 38 비전과 역량
- 40 고객감동서비스
- 42 사회공헌활동



처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자연농원에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신나는 놀이기구에 어린 마음은 단숨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던 아련한 꽃 향기도,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자들의 모습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봄밤, 장미원에서의 달콤한 고백은 아직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름날 이국적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젊음은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었지요. 진입로에 흩날리던 붉은 낙엽들과 눈썰매장의 하얀 눈빛은 내 삶의 아름다운 빛깔로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이슥 빌리지에 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토끼와 거북을 만나고 여우와 두루미가 내놓는 음식을 즐깁니다. 동물 공연을 보며 아이보다 더 신이 났더라고, 그이가 웃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에버랜드는 활력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에 버 랜 드 와 함 께 한
아 름 다 운 날 들

1976-1986 새로운 레저 문화의 시작

1976년 4월 17일, 5년여 동안 450만 평의 산지를 개간하여 준비한 자연농원이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식물원과 동물원, 놀이동산으로 꾸며진 자연농원은 국토개발 시범장이자 자연학습장으로 세상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신기한 동물들, 아름다운 꽃,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장미축제, 야간개장이 시작되면서 자연농원은 비일상적인 체험과 즐거운 휴식, 정서적 안정을 주는 전 국민의 레저 공간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1987-1996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향한 도전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농원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갔습니다. 공룡전, 세계미이라전 등 대형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즐기며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해 나갔고 눈썰매장 개장에 이어 롤러썰매, 국화큰잔치를 마련해 사계절 꽃축제를 완성하였습니다. 개장 20주년을 맞은 1996년에는 에버랜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페스티벌 월드의 시설과 퍼레이드를 개편하고 세계 최대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를 열어,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997-2006 행복을 충전하는 복합 리조트

에버랜드는 특유의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영혁신과 고객만족경영을 전개하여 IMF 외환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2000년 들어 축제, 이벤트, 공연 등 새로운 테마를 만들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01년에는 연간 입장객 91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세계 5위의 테마파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페스티벌 월드, 캐리비안 베이, 스피드 웨이, 홈 브리지, 글렌로스 골프클럽, 에티바파크 등을 갖춘 종합 리조트로 성장한 에버랜드. 이제 3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타운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연농원 가던 날, 밤을 꼬박 새웠다.
사파리에서 늑대한 사자를 보았고,
제트열차를 타고 환성을 질렀다.
그날 밤, 나는 커다란 사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놀이동산의 중심이었던 요술집 주변 로망스사

사자를 타고
하늘을 날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모험의 세계

우리는 난생 처음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돼지저금통을 탈탈 털어 용인행 시외버스를 탔다.
우리가 상상했던 진정한 모험이 시작된 것이었다.



81년 12월부터 시작한 학습관광,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92년 자연농원의 돌림축제

그해 봄은 온통 장미 빛깔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처음 손을 잡았다.
그 매혹적인 장미 향기 속에서,
우리의 젊음은 눈부시게 빛났다.



첫사랑 장미꽃 향기로 남고

동화 속으로 걸어간다

아이는 토끼와 거북이를 따라 신나게 동화 속으로 들어간다.
 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추억 속으로 들어간다.
 30년 전,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이 청춘남녀 모두가 어울리는 자연농원



자연농원 동물원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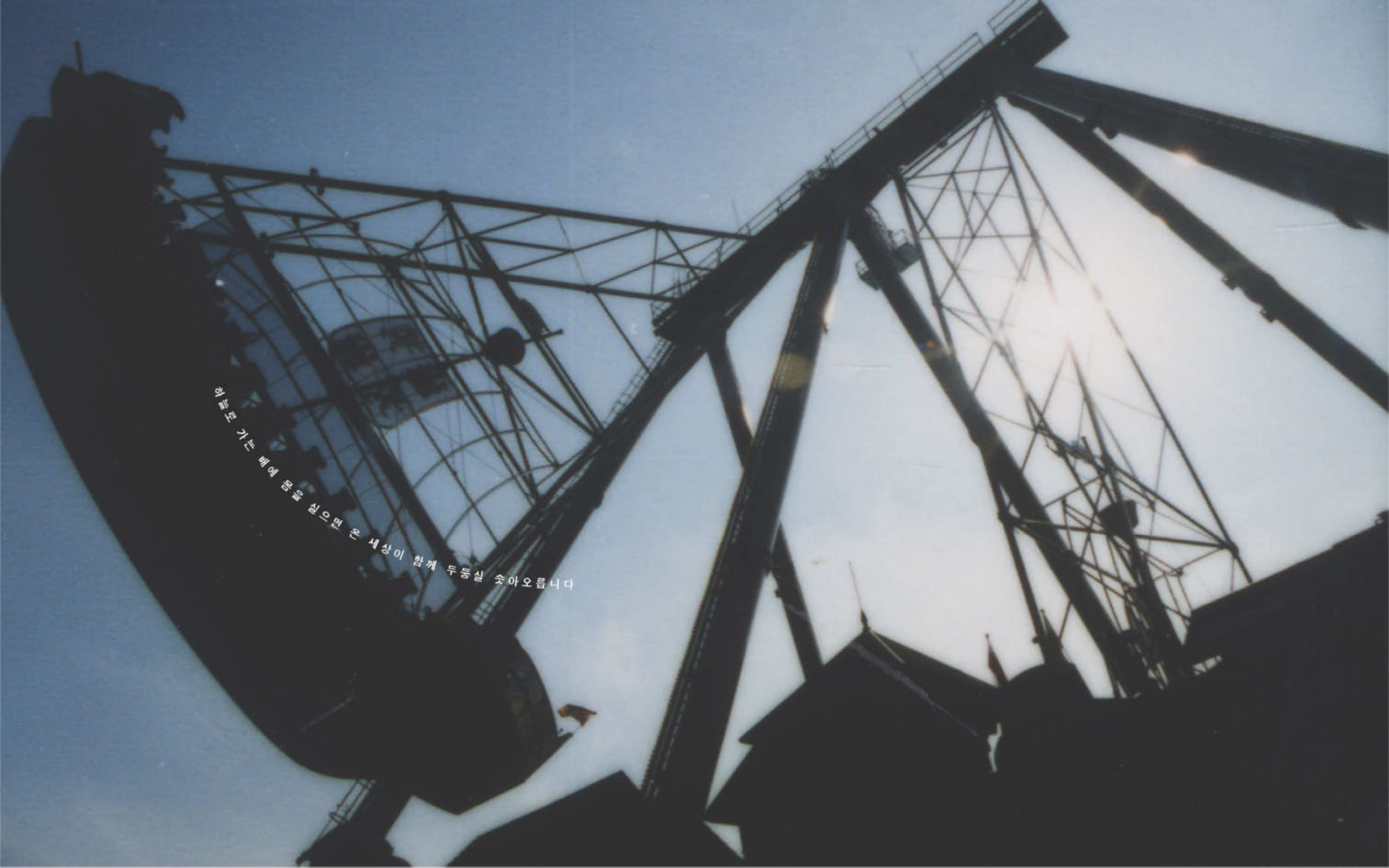


Everland is Fant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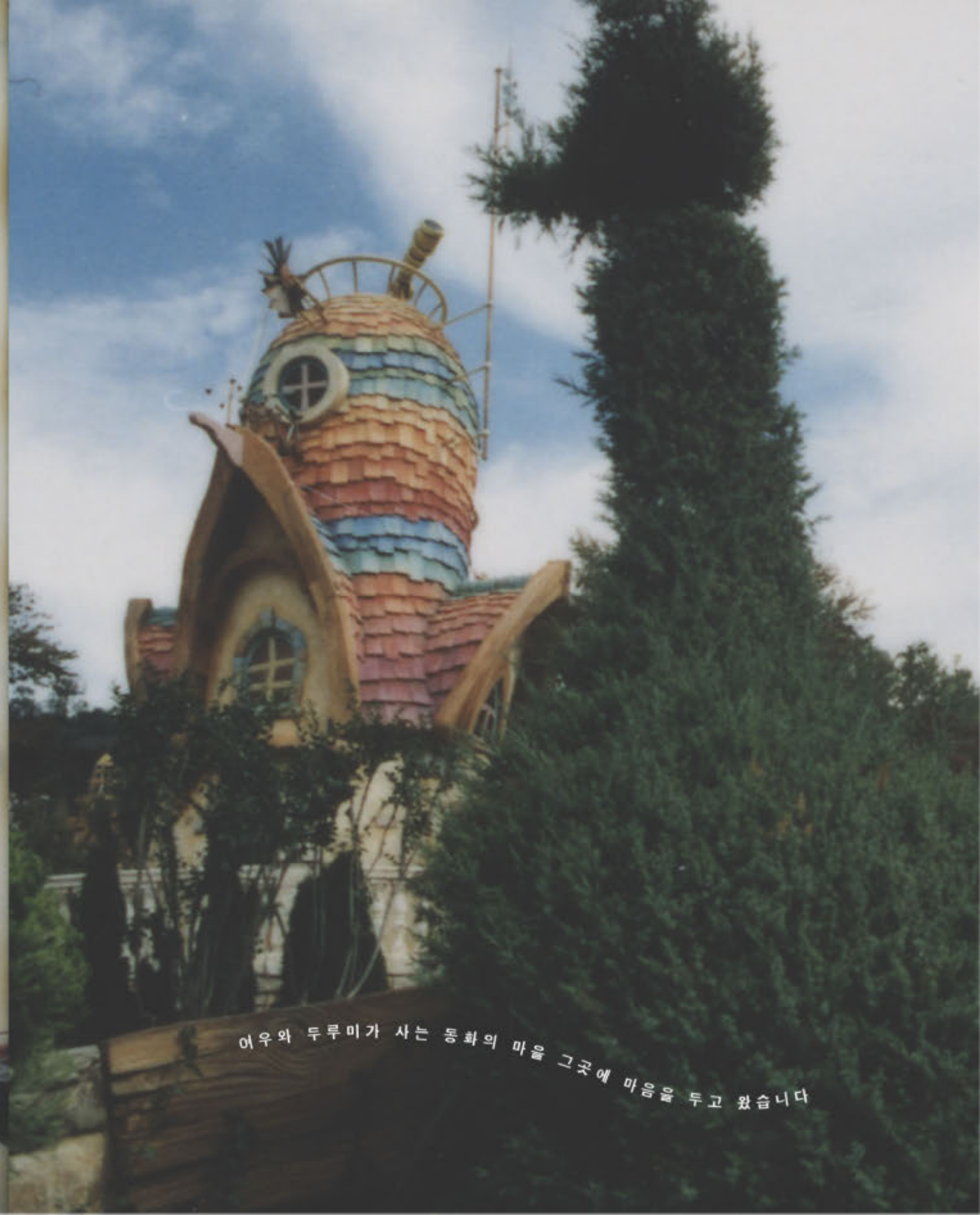
에버랜드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

Everyday is a holiday at EV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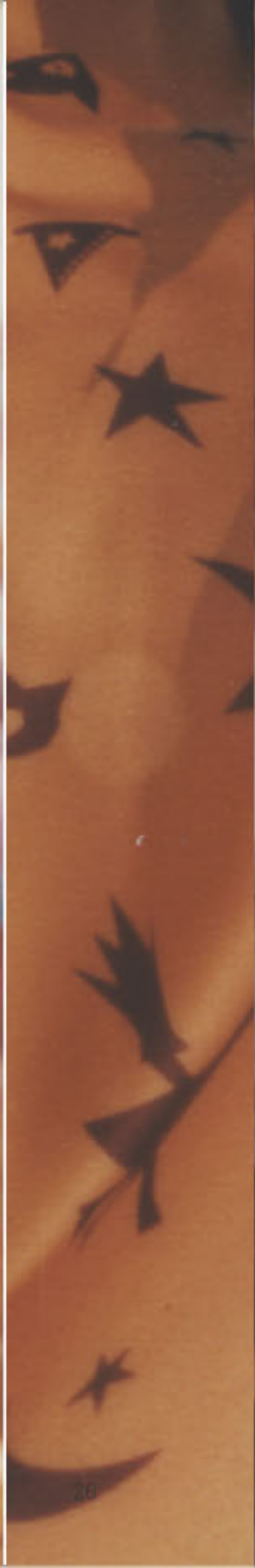


A low-angle, upward-looking photograph of a ship's mast and complex rigging. The structure is dark and silhouetted against a bright, hazy sky. A strong sun flare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creating a bright, circular glow. The rigging consists of numerous cross-ropes and structural beams. In the lower right, the dark silhouette of a ship's cabin or deck structure is partially visible.

하늘로 가는 배에 많은 실은 모든 세상이 함께 두들실 솟아오릅니다



어우와 두루미가 사는 동화의 마을 그곳에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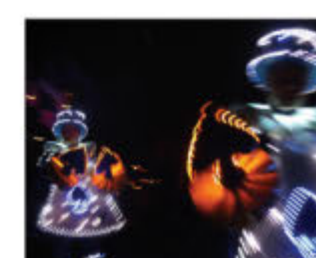




사바나에서 온 사자와 기린을 따라
내 마음도 드넓은 초원으로 달려가리라



화려한 불빛 속에 감춰진 놀라운 마법이
나를 또다른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everland is fantasy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

하루종일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숙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짜릿한 자동차 경주를 해볼 수도, 옛 정원을 천천히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비밀상적인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에버랜드에서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페스티벌 월드 페스티벌 월드는 365일 내내 축제가 벌어지는 전천후 레저 공간입니다. 글로벌 페어, 아메리칸 어드벤처, 매직랜드, 유러피언 어드벤처, 이퀴토리얼 어드벤처 등 5개의 테마지역에 50여종의 최신 어트랙션, 복합 야생 사파리월드, 이슬 빌리지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튼튼, 장미, 백합, 국화 꽃향기가 계절마다 가득하고 유로 페스티벌, 씬머스 플래쉬, 해피 할로윈, 스노우 페스티벌 등 계절마다 다채로운 축제와 퍼레이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이슬 빌리지 개장 30주년 기념으로 오픈한 이슬 빌리지는 세계 최초로 '이슬 이야기'를 현실에 재현한 세상에서 가장 큰 동화책입니다. 4,000평의 공간에 이슬 이야기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사는 동화 속 마을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야기 주인공들을 테마로 한 놀이기구, 레스토랑, 상점 등을 골고루 갖춰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캐리비안 베이 17세기 중남미 카리브해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캐리비안 베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내외 복합형 워터파크입니다. 조파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인공파도에서 서핑까지 즐길 수 있는 파도 풀, 실내외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세계 최장의 유수풀, 바닥이 모래도 가득 채워져 있는 샌디풀과 어린이풀, 실내외 스파, 그리고 모험과 스릴을 극대화한 최첨단의 각종 슬라이드에 이르기까지, 워터파크의 모든 재미를 한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웨이 국제적 규모를 갖춘 레이싱 파크, 스피드 웨이는 국내 자동차 경주의 메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투어링카 A, B, 원메이커, 포뮬러전, 특별전 등 길이 2.1km, 폭 1m의 레이싱장에서 펼쳐지는 스틸 넘치는 자동차 경주가 짜릿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코스체험 주행, 오프로드 체험 등에 직접 참가할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글렌로스 골프 클럽 국내 최고의 골프 명가 삼성에버랜드가 1999년 개장한 퍼블릭 골프클럽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설계하였으며 평탄하면서도 높은 고저차가 있어 골퍼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9홀이지만 2티 2그린 시스템을 적용, 각각의 티에서 그린까지의 전략이 차별화되어 18홀과 같은 느낌으로 라운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홈브리지 호스텔 홈브리지 호스텔은 에버랜드를 1박2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숙박시설로 다양한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통나무로 만들어진 캐빈 호스텔은 학교, 기업체, 동호회의 단체 행사는 물론 가족 휴양지로도 적합한 자연 속의 별장입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힐사이드 호스텔은 가족실 중심으로 가족이나 단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아늑한 숙소입니다.

엑티바 파크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가족이나 단체를 위한 공간입니다. 4,900평의 넓은 잔디구장 2개와 각종 구기종목 경기장을 갖추고 있어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은 한국 미술 5천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박물관으로, 15,000여 점의 역사적 유물과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야외 조각장에는 서양 미술, 건축 거장들의 유명한 조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담, 정자, 연못 등으로 꾸며진 전통정원 '희원'에서는 자연과 함께했던 선인들의 고아한 향취를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교통박물관 1988년 개관한 삼성교통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문박물관입니다. 초창기부터 미래형 자동차까지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동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존연구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야외 행사장 등을 갖추고 있어 체험하고 학습하는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verland is fantasy

365일 축제의 나라

알프스 산속에서 썰매를 탑니다.

흥겨운 삼바 리듬에 흠뻑 빠집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유럽 왕실의 화려한 무도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유쾌한 상상과 신나는 체험이 시작되는 곳.

에버랜드에서 꿈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새하얀 눈과 얼음의 나라

❁ 스노우 페스티벌 (1~2월) 이국적인 알프스의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눈과 얼음의 축제, 스노우 페스티벌. 스노우 버스터에서는 스키썰매, 튜브썰매 레이, 가족썰매, 유아썰매, 화이트썰매 등 스위스 산악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눈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참나무 장작 스토브가 마련된 알파인 빌리지에서는 따뜻한 차와 음식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감상하는 즐거움도 새롭습니다.

화려하고 유쾌한 유럽 여행

✧ 유로 페스티벌 (3~6월) 2005년에 첫선을 보인 유로 페스티벌은 에버랜드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의 새로운 축제입니다. 파크 전체를 유럽 왕실로 꾸며, 하루만에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화려함을 표현한 퍼레이드 '베르사유 파티', 유럽 광장의 축제 문화를 재현한 '유로 카니발', 그리스 올림푸스 신전을 배경으로 한 멀티미디어 쇼 '올림푸스 판타지' 등 유럽 각국의 축제와 음악, 민속춤, 거리공연이 화려하고 다채롭게 펼쳐져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고 흥겨운 물의 향연

❁ 뽀머 스플래쉬 (6~9월)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물'을 테마로 한 여름축제로 물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주간에는 물을 직접 맞으며 즐기는 '스플래쉬 퍼레이드'와 함께 물놀이 테마공간 '스플래쉬 존', '쿨 존'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물아냅니다. 야간에는 화려한 빛의 퍼레이드 '라이트 스플래쉬'와 멀티미디어 쇼로 상쾌한 여름 밤을 즐기게 됩니다.

신기하고 유쾌한 공포 체험

❁ 해피 할로윈 (9~10월) 할로윈 파티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색다른 축제로 발전시킨 가을축제입니다. 신기하고 유쾌한 공포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

리와 먹거리로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파크 곳곳을 조형물과 호박으로 장식하고 레이저 빔을 활용해 할로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새로운 퍼레이드 '해피 할로윈 파티'와 함께 '할로윈 밴드', '할로윈 로드 파티'도 흥미를 더합니다. 독일의 정통 축제 '옥토버 페스트'도 함께 열려 축제가 더욱 풍요롭습니다.

가슴 설레는 크리스마스의 매혹

❁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판타지 (11~12월) 국내 테마파크 사상 최초로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어오다 2004년에는 보다 새롭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판타지를 선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시'를 컨셉으로 하여 대규모 오로라를 에버랜드 상공에 재현하는 '크리스마스 매직 인 더 스카이'를 오픈하고 대규모 테마공간 '산타 빌리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캐롤 판타지, 크리스마스 판타지 퍼레이드, 트리 점등식 등 대형 공연으로 감동적이면서 환상적인 크리스마스를 선사합니다.

매일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

❁ 매직 퍼레이드 마법과 꿈, 모험 등을 테마로 한 주간 퍼레이드. 어릴적 동화속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행진이 동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 문 라이트 퍼레이드 오색찬란한 빛으로 엮는 밤의 퍼레이드. 은은한 달빛 속에서 수만 개의 불빛을 따라 모험과 환상의 마법 세계로 빠져듭니다.

❁ 올림푸스 판타지 거대한 그리스 신전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신들의 축제. 화려한 워터 캐논과 서치 라이트, 불꽃 등 첨단 멀티미디어가 특별한 즐거움을 줍니다.

❁ 댄스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흥겨운 춤으로 표현한 대형 뮤지컬. 고대 군무에서 화려한 왈츠, 신나는 디스코, 흥겨운 힙합까지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 점점 많아 집니다.

즐거움이 새록새록 늘어 갑니다.

마음이 1℃씩 따뜻해 집니다.

세상이 조금씩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유,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everland is dream

내일을 그리는 새로운 꿈

에버랜드는 지난 30년 동안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三間) 정신을
근간으로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고객의 생활을 보다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에버랜드가 온 가족이 머물며 즐기는
세계 초일류의 체재형 복합 리조트 단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드리는 에버랜드.
그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체재형 복합 리조트로의 변화

머물며 즐기는 체재형 복합 리조트 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시설과 서비스, 식음, 상품 등 전 영역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물론 세계인이 즐겨찾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연출 서비스

에버랜드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캐스트'이고 '유니폼' 대신 '무대의상'을
입습니다. 혼신을 다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캐스트들은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고 즐거움을 나누는 감성 연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레저 문화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인간중심경영이라는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단지를 완성하여 레저
문화를 이끌어갈 글로벌 전문 인재, 지금 에버랜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everland is dream

에버랜드 사람들은 고객 감동을 위해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생활에 힘이 되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 에너지,
에버랜드가 드립니다.

행복 에너지는 마법
오글 - L - L

사라리
모글



이제부터는 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에버랜드의 예쁜 추억까지 담아 드릴게요.
감예림, 사라리 월드 상품팀



제가 만든 특별 요리 한번 맛보세요.
신선한 재료, 풍부한 맛, 특별한 정성까지
가득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세두루 차장, 에버랜드 F & B

저는 이슬빌리지에 사는 어린이들의 친구예요.
이슬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재미있고
환상적인 동화나라로 안내할게요.
안호준, 이슬빌리지 어트랙션 운영



마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신비한 꿈의 나라, 신나는 모험의 세계가
바로 눈 앞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테니까요.
외국영, 공연팀



사자와 호랑이 중 누가 더 힘이 센까,
기린은 키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멋진 사피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남지혜, 사파리 동물원

에버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인사는 평안하게, 마지막 인사는 따뜻하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를 선사하겠습니다.
최미연, 손님만족실



제가 한번 지나가면 공원이 미술처럼 깨끗해지죠.
언제 찾아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에버랜드, 제가 맡겨 주세요.
홍길동, 그린서비스

everland is dream

나누는 마음, 커지는 사랑

어린이의 소중한 꿈을 가꾸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에버랜드는 이웃과 함께, 사회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에버랜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슴에 피는 푸른 꿈

미니분교 지원사업은 전국 오지의 미니분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 선발된 학교의 어린이와 교사를 에버랜드에 초청하는 행사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공헌활동이기도 합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2박 3일간 홈브리지에 머물며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어린이교통박물관을 방문하고 오락시간을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에버랜드는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의료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매년 20여 명의 환아들에게 의료비와 진단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합니다. 연말에는 임직원들이 '사랑의 산타'가 되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합니다. 에버랜드는 이 행사를 통해 희귀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환아들의 치료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봉사 의 기쁨

에버랜드의 임직원들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 '1사1촌 자매결연' 등 전사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동물원 직원으로 구성된 '팬더 봉사팀'은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동물심리치료(PAT), 초등학생 자연사랑(동물보호)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verland is



EVERLAND
RESORT

2005 everland

everland is 30 years old

고객과 함께 하는 에버랜드 30주년 기념 이벤트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

남미, 유럽 등 세계의 유명한 카니발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리오, 베니스, 케리비안, 에버랜드 등 총 4개의 카니발을 가신 화려하고 멋진 퍼레이드로 재현합니다. 눈부신 의상, 신나는 리듬, 환호한 줄이 어우러져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장소 퍼레이드 동선

기간 2006년 3월 17일부터

30주년 오프닝 세레모니

매년 펼쳐지던 아듀 헬럼 행사가 개장 30주년을 맞아 더 일차고 풍성하게 꾸며집니다. 에버랜드 30년 영상쇼, 2006년 신규 공연 프리쇼 등 다양한 축하공연을 선보입니다. 아쉬움 속에 2006년을 보내고 가슴 떨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장소 포시즌즈 특별 무대

기간 2005년 12월 31일

에버랜드 30주년 기념관

신나는 모험과 즐거운 환상, 특별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던 에버랜드의 30년! 1976년 개장 때부터 2006년 현재의 모습까지 에버랜드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온 에버랜드의 30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나보십시오.

장소 관대온 클로즈 애칭

기간 2006년 1월 1일부터

에버랜드 길라 콘서트

화려한 의상, 매혹적인 움직임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댄스 히스토리'를 개장 30주년 기념 스테이지쇼로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더욱 화려해진 무대, 더욱 다양해진 레퍼토리로 환상적인 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장소 그랜드 스테이지

기간 2006년 3월 17일부터

배밀리 포토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쌓은 에버랜드의 추억, 그 사진으로 에버랜드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진 공모한 고객 여러분의 사진으로 대형 모자이크를 만들어 에버랜드 곳곳에 전시합니다. 애뽀 추억이 담긴 모습,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소 에버랜드내 지정 장소

기간 2006년 2월 1일 ~ 12월 31일

30주년 개장 기념 행사

개장 30주년의 기쁨을 에버랜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개장기념일인 4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에버랜드에서 신나는 생일 파티가 벌어집니다. 흥겨운 야외 공연으로 더욱 즐거운 파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장소 이벤트 플러자 특별무대(4/16),

정문 지역(4/17)

기간 2006년 4월 16일, 17일



EVERLAND
RESORT

